

시인의 마을



구름 가족

불 아래 내려온 구름 가족처럼 살고 싶은 그런 자그마한 소망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누구에게나

-박여범 시인 <구름 가족> 전문-

시詩를 담다

'하늘'은 '가을'이다. 그 누구도 비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만큼 '가을 하늘'이 그 어느 계절의 그것보다 맑고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파란 하늘에 한 조각 구름은 금상첨화다. 즐길 수 있을 만큼 눈에 담은 파란 하늘과 구름 가족이 카메라에 들어 왔다.
그런가 하면, 디지털지와 인제가 교묘하게 섞인 아찔한 녀석도 있다. 동화나 시, 소설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구름이 있다. 가끔 여행을 통해 만나는 녀석은 지구 어디에서 만나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무덤 하면 연상되는 '진근한', '어디신가' 본

뜻한, '하수함'이다. 그중에 최고는 뭐니 뭐니해도 비행기 창문을 통해 눈여보는 '구름바다'다.
상상해봐라. 비행기가 앉아 장문을 살포시 열어 쫓는다. 눈 앞에 펼쳐진 세상은 온통 '구름 사탕'이다. 활짝 웃으며, 그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 구름 가족이 석양이 아름답던 도시, 전통과 예술혼이 살아 있는 전주 혁신도시 기지대에 가솔 나뉘어 왔다. 소리도 소문도 없이 기지대에 내려앉은 구름 가족이 너무나 반갑고 부러워 환함을 바라본다. 그리고 캐보지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끄적여 본다.

불 아래 내려온 구름 가족처럼 살고 싶은 그런 자그마한 소망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누구에게나

시인의 김수성은 평범해 보인다. 그렇지만, 이 세 줄의 메구가 가져다주는 효과는 대단하다. 자신과 어울러지는 문장으로 제법생된 생각을 키워주는 데카시 한 편이다. 그렇게 세상에 빛날주는

가족이 되었다.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극적인 덩어리가 데카시다.

이처럼, 데카시는 사진이나 사물을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느낌이 될 수 있다. 제목이나 시행, 비유법의 사용 등 창의적인 사고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독자의 몫이다. 그 결과는 같은 사진을 눈에 담고도 개성이 드러나는 수많은 데카시를 써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반갑고, 그에게 인사를 건넨다.

고백다. 구름 가족아, 내 곁에 약 쉬어...



박 여 범

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시위자들 에워싼 터키 경찰



24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터키 경찰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좌파 소속 시위 참가자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터키 전경은 정부의 경제 정책과 치솟는 생활비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폐쇄 크리스마스마켓 지나는 오스트리아 남성



2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코로나19로 폐쇄된 크리스마스 마켓 주변을 한 남성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한 국가 봉쇄로 오스트리아 국민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비필수 상점들이 폐쇄됐다.

사설

전북 여성지도자 세미나의 과제

전북 여성 지도자 초청 세미나(Global Women's Peace Network)가 최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세계 평화여성연합(WFPF) 한국본부가 주최하고 호남·제주지구가 주관했다.

세미나에는 전북 도내 50여명의 여성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발레 한류'를 개척해 온 문훈숙 세계 회장 '문훈숙의 발레 스토리' 특강이 있었다.

문훈숙 회장은 한국 최초의 민간 발레단인 유니버설발레단의 단장을 맡아 발레의 대중화와 한국 발레의 수준을 세계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이날 세미나 참가자들은 전북 지역 주요 여성 단체 활동 상황 등을 상호 공유했다. 특히 세계 평화여성연합 창설자의 이념과 비전을 중심으로 한 교육·참가정 운동·파트너십·화해와 협력·인도주의적 봉사 등을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

그밖에 인종·문화·종교를 초월해 세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한 실천적 활동 등에 깊이 공감하게 됐다.

갈수록 지역 여성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단체 간 교류와 협력·파트너십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바로 통일 운동과 지역 기반 조성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서로가 하는 일을 공유하고 공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상호 협력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때이다.

특히 신통일한국을 위한 발걸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가 없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하는 숙명적인 길이다. 21세기는 여성들의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다.

세미나 등을 통해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일이 시급하다. 세상을 움직이는 문화와 예술처럼 여성 지도자들도 아름답게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 바란다.

전주한라노인자원봉사클럽 봉사활동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한라노인자원봉사클럽의 봉사 정신이 귀감이 되고 있다. 귀감(龜鑑)이란 본보기가 될 만한 언행이나 거울로 삼아 본받을 만한 모범을 가리키는 말이다.

실제로 클럽 회원들은 환경 정화 봉사를 통해 주변의 청송을 받고 있다. 회원들은 잠주 시민들의 휴식처인 건지산 일대의 환경 정화 봉사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2016년 결성된 한라노인자원봉사클럽은 회원 20여 명이 참여하여 월 2회 이상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버려진 휴지, 반병 등을 수거하고 분리 배출한다. 깨끗하고 쾌적한 건지산을 보존하기 위해 활발한 봉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오재만 코치는 "노년 봉사 조끼는 삶의 활력소다. 맑은 공기의 숲속에서 봉사 활동을 하니 몸과 마음이 더욱 더 건강해진 다"고 말했다. 그는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신체 건강한 어른으로 회원들을 이끌고 격려한다.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장은경 센터장은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참 어른의 모습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자원봉사는 지역 사회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자아를 실현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돕는 행위를 자원봉사로 이해했다.

그리고 노인은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만 인식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노인들은 생각보다 건강하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다. 평생 생을 통하여 축적한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은 봉사 활동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백세 시대로 들어설수록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원봉사는 자기 스스로(自) 원해서(願) 받들고(奉) 섬긴다(仕)는 뜻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